



소프트뱅크그룹,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 추진

이상우 선임연구원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SBI홀딩스는 인터넷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SBI생명보험을 설립하여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 이를 위해 SBI홀딩스는 생명보험사업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설립추진 준비회사를 출범시켜 2012년 여름에 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할 계획임.
- SBI홀딩스는 내년에 설립될 SBI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사망보험이나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할 계획이며, 산하의 다양한 금융 자회사를 활용하여 증권, 모기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등을 자회사의 인터넷에서 취급할 계획임.
 - SBI홀딩스는 저연령층을 목표시장으로 하여 파격적인 수수료 등 인터넷의 장점을 살려 생명보험 사업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이에 앞서, SBI홀딩스는 2008년 프랑스의 일본 내 지주회사인 AXA홀딩스와 공동으로 SBIAXA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여 3년간 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음.

- 그러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일부 생명보험상품에 대해 인터넷 기반 사업모델을 추진하고자 하는 SBI와 대면판매 채널을 통한 오프라인 사업모델을 주장하는 AXA가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서로간의 경영 전략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10년 2월 SBI가 지분을 매각하고 사업에서 철수함.

■ 최근 들어 일본은 경기침체의 지속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판매가 연간 7% 이상 성장하고 있음.

- 이에 SBI는 오프라인 채널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사업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 전용 생명보험사업에 진출하게 됨.

(일본경제 7/21, 마이니치신문 7/21, 뉴스 종합)